

## 새로운 천 년(2000)을 준비하자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지난 달에는 남북분단 반세기 만에 대규모 관광단이 금강산을 다녀왔고 이제 매일 천여명의 관광객이 북쪽에 체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여 한반도도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남포부근에 대규모 공단이 건설되고, 남쪽의 유희 공장시설이 이전되고(김종필 총리 국회답변), 도시가 형성되면 자연히 주변에 양돈산업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양돈에서 한반도의 양돈으로 발전하게 된다.

13개월 후에는 2천년을 맞게 되고 앞으로 1년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에이펙(APEC)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Y2K(밀레니엄 버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역, 관광, 금융, 에너지, 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새로운 정보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양돈산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IMF를 맞으면서 중소기업, 가족중심의 대만이 잘 버티는 것을 부러워 하였다. 그러나 대만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중화학 분야 위주의 산업발전도 부러워 할 것이다.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양돈산업 구조로는 경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중심이 되든, 아니면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든 계열화 체제로 서로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덴마크나 미국 등 양돈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13개월 내에 이 문제도 발전방향 만이라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12월부터는 돼지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서울 도매시장의 평균가격도 규격돈 평균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도매시장업도 개방이 되면 외국 업체들이 정육 또는 지육을 수입해서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하게 될 것이고, 가격기준도 다양화 될 것이다.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양돈산업 구조로는 경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중심이 되든, 아니면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든 계열화 체제로 서로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  
 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덴마크나 미국 등 양돈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다. 앞으로 13개월 내에 이 문제도 발전방향 만이라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가격구조도 과거  
 의 생산비 개념에서 이제는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따라 바뀌어 갈 수 밖에 없다. 육류  
 의 대표적인 쇠고기가 관세 부과없이 자유롭  
 게 수입되는 시기도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  
 다.

우리의 경제구조가 해외 의존도가 높고 경  
 제회생을 위하여 개방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  
 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의 세계시장 노출은  
 불가피하여 축산업이 빠르게 변모할 것이고  
 여기에 대처하는 길은 외국과 같이 능률적이  
 고 효율적인 계열화 체제로 급격히 구조조정  
 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새해에도 지금과 같이 사료, 동물약품, 농  
 장에서의 비육돈 생산, 종돈, 도축, 유통, 도·  
 소매등 모든 분야가 병존(併存)체제로 되어  
 있는 구조를 유기적 공존체제로 바꾸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은 분야별로 서로 거래  
 관계일 뿐 같은 산업에 종사하며 공동체로서  
 의 의식은 희박하였다.

어쩌다 축산이라는 한 울타리에는 들어와  
 있지만 서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으로 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느냐 하는 약육강식의  
 관계이었다.

이제 몸통에 깃털과 팔다리가 붙어있고, 머  
 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팔이 다치면 발  
 도 통증을 느끼는 유기체로 바꾸는 작업이  
 새해에 시작되어야 한다.

하루 속히 양돈축협이나 축협중앙회가 계  
 열주체가 되기를 바라지만 축협이 어려우면  
 건실한 기업이 계열주체가 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사업의 성패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누가 더 많이 판매 하느냐에  
 달려는데, 최근 외국의 대형 할인매장의 진출  
 은 자칫하면 축산물의 수입수요와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금년 한 해도 자돈의 전염성 설사로 많은  
 피해를 보았고 연초 환율인상에 따른 사료값  
 폭등, 장마, 태풍피해 등 예년보다 어려운 시  
 련이 있었지만 양돈업계는 잘 버티어 왔다.

새해에는 양돈산업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자  
 되어 지금까지 부족한 도축, 유통 및 산업구  
 조 개선, 방역위생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  
 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 되어, 양돈 생  
 산농가는 오직 생산에만 힘쓰는 2000년을 준  
 비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養豚**